

배 ‘성장촉진제’ 독점피해 크다

연간 100억대 시장 2개 수입업체 독식

가격 폭리 심각... 中 여행객 통해 밀수 성행

국내 배 재배농가들이 수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지베랄린(성장 촉진제)’ 가격이 턱없이 비싸 밀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베랄린의 경우 자체에 무해한데 도 현행 법에 농약으로 분류돼 수입 및 판매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2개 사에만 수입이 허용돼 이를

다.

중국산 지베랄린은 조직적으로 수천개씩 밀수되는 것을 비롯해 보파리 삼들이 들여오는 것 등을 합하면 수억원 대가 밀거래 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지베랄린 밀수가 성행하면서 지난해 6천500개(3억여원 상당)를 판매했던 나주 금천농협의 경우 10일 현재 600개 판매에 그치고 있으며 나주농협도 지난해 판매량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밀수가 성행하는가 하면 배 재배농가들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지베랄린 생산에 나섰으나 국산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가 늘고 있

전망이다. 지베랄린이 농약으로 분류된 만큼 시범 포를 지정, 약효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제품 생산에서 판매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과수농가들은 “농약으로 분류되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미생물도 농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등 현행 법 규정에 미비한 점이 많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잔디모종 옮겨심기 한창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요즘 강진지역에서 잔디모종을 밭에 옮겨심는 아낙네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도로 공사 현장이나 묘지단장, 골프장 등 수요가 늘고 있는 잔디는 고추나 고구마 등을 심는 것보다 수익이 보장돼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광양시 여권분소 설치

동부권 여권 발급 빨라진다

여수시와 광양시에 여권분소(이하 분소)가 설치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여권 발급이 빨라지게 됐다.

분소 설치는 외교통상부가 시·군 거주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연 1만건 이상 여권을 발급하는 전국 주요 도시에 분소를 개설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여권 접수와 교부 업무 외에 심사까지 맡게 된다.

특히 전남도청 이전 이후 여권 발급을 위해 무안까지 이동해야 했던 여수와 광양, 순천, 고흥, 보성, 구례 등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은 분소 설

치로 평소 2주 정도 걸리던 여권을 7 일만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식비와 교통비 등 경제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와 광양시는 분소 설치에 따른 인력 및 장소 확보와 장비 설치 등이 마무리되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여권 발급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여수시와 광양시의 지난해 여권 발급 건수는 각각 1만5천건, 1만1 천건으로 집계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구례군 사랑의 쌀 나누기’

구례군과 농협중앙회 구례군 지부는 지난 14일 구례군청 현관 앞에서

‘지역공동체 사랑나누기·구례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쌀 100포(20kg)가 전달됐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안강망 등 어선 71척 줄인다

여수시 6개 업종 구조조정

여수시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44억원을 투입, 어선 71척을 줄인다.

감척 대상은 자망과 복합, 들판, 안

강망, 선망, 통발 등 6개 업종이다.

폐업지원금은 입찰에 의해 결정하며 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액은 감정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여수시는 715억원을 들어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근해 어선 292척을 감척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광산 행정동우회 定總

신임 회장에 조동희씨

광산구 행정동우회는 14일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에는 조동희씨, 부회장에는 양노진·김종곤씨, 총무에 나장식씨가 선출됐다.

이날 조동희 신임 회장은 행정동우회 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광산=기원대기자 wtkeet@

금융사기 예방 스티커 배포

영광경찰서가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동남 경찰서장은 “세금환급이나 신용카드 명의 도용 등을 가장한 전화 금융사기가 빨발하고 있다”며 “반드시 해당기관에 직접 사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1뿌리 50만원 ‘산양삼’ 훔치려던 공무원 조사

장흥경찰 절도사건 접수

공무원들이 고가의 산양삼(山養參)을 물레 캐 가려다 밭각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장흥경찰서는 14일 산양삼을 허락 없이 캔 험의(특수절도)로 화순군 공무원 A(48)씨와 B(42)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5시30분께 장흥군 대덕면 재배지에 들어가 산양삼 46뿌리를 캐 가져가려다 업체 관계자들에게 적발됐다.

이 산양삼들은 고려시대 화순 동복

지역에서 재배되었던 인삼을 산·학 협력을 통해 복원한 것으로, 화순군에서도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로 시료 채취를 요구했으나 ‘다음에 정식으로 요청하면 주겠다’고 답해 그냥 재배지에 들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뿌리 당 5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이고 무단 채취로 상품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피해자의 말과 전문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구례군 사랑의 쌀 나누기’

구례군과 농협중앙회 구례군 지부는 지난 14일 구례군청 현관 앞에서

‘지역공동체 사랑나누기·구례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쌀 100포(20kg)가 전달됐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진찬,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 ★ 시외·시내 출장전문
- ★ 체육대회·야유회
- ★ 식탁·의자 무료지원
- ★ 연회장 주차장 완비

파티외식산업

상담전화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

전남·북 시군 지사모집

www.party-food.co.kr

* 홈페이지 한글주소 *
파티외식산업

싱그러운 새봄을 맞아 모디쉬갤러리가 신축 오픈이벤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디쉬갤러리 Open Sale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픈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족소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이그네스 2+2 가족소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황옥 4人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화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HS-6720 비트

1,990,000원 (5조한정판매)

미가엘 거실장작세트

1,470,000원 (5조한정판매)

Open기념

황토실침대, 장수온돌침대 한정판매

JSD-비트Q

1,470,000원 (5조한정판매)

미가엘 5단서랍장

아시아 2.2 소파

미가엘 화장대

오마가 대리석 식탁세트

• 모디쉬갤러리
• 광주전시장

• 홈플러스
• 문화체육관광부

• 충청북도
• 한국통신